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7월 6일(일) 제1547호

가자 열방으로! 전하자 복음을!

여름 아웃리치 본격 시작
국내 191개 팀 4,300명
해외 124개 팀 1,990명 참가

202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본격 시작됐다. 올 여름(7~8월) 온누리교회 아웃리치에는 국내 191개 팀 4,300명, 해외 124개 팀 1,990명이 참가한다(7월 4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32개 팀 1,014명, 대학청년부 136개 팀 2,898명, 차세대 23개 팀 388명이 참가한다. 춘천, 제주, 남양주, 광주, 태안, 서천, 여수 등지에서 군 장병 초청 잔치, 마을 및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 어르신 섬김, 마을 미화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34개 팀 534명, 대학청년부 63개 팀 955명, 차세대 27개 팀 501명이 참가한다. 미얀마,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베트남, 뉴질랜드 등에서 선교사 위로와 교제, 교회 보수, 어린이 캠프, 마을 전도 등을 한다.

미디어본부에서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일)까지 올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아웃리치 팀당 최대 1편 출품할 수 있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 등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onnuriacts25)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도 응모할 수 있다.



2024 SNS청년부 스리랑카 아웃리치.

일(onnurismart@gmail.com)로도 응모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 용지 1장)과 아웃리치 사역 사진 및 간증자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

면 된다. 사진은 단체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역 사진(가로)이 좋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간증자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제출한 원고는 7~8월 〈온누리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수원 창립 22주년 감사예배 7월 6일 명지대 채플관

수원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예배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7월 6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채플관에서 드린다.

이날 감사예배는 '세대 통합예배'로 드린다. 대표 장로, 대표 권사, 대학청년부 MC, 차세대 학생이 함께 대표 기도를 한다. 수원 사이닝키즈와 별샘 김도임 서예가의 특선도 이어진다. 감사의 떡도 나눠준다. 7월 8(화)~10(목) 오후 7시 30분 기흥CT밸리 예배당에서는 '전교인 부흥회'가 열린다. 정갑신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출간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과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가 출간됐다. 7월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개정 4판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양육 중인 성도들은 기존 교재를 사용하면 된다(관련 기사 3면).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는 이기훈 목사(일대일 제자양육 담당)의 저서로 훈련받지 않은 신앙이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에서는 전반적인 언어와 구성, 문장 표현을 다듬고, 보충 설명 등을 추가해 성경적 이해와 실제 적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제 구성은 첫 만남을 포함해 16주 과정으로 재편되었고, 과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추가했다. 과별 내용도 수정했다. 예수님 사역 순서를 정리하고, 성경 및 기도, 전도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실천을 독려하도록 개편했다. 양육자 훈련 권고 내용을 기록하고, 부록에 기도계획표, 성경암송카드, 키 그림 설명 등을 개편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 홍하영 기자

714연합기도대성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7월 14일 오후 2시 한양대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714연합기도대성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호 6:1)를 주제로 7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막 오른다.

이번 714연합기도대성회는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오후 2시)에서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환영 인사와 비전 소개,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설교가 이어진다. 정명호 목사(해성교회), 김용석 목사(서울반석교회)가 기도를 인도한다. 찬양은 청주상당교회 찬양팀과 청년찬양팀(경북)이 인도한다.

두 번째 세션(오후 4시 15분)에서는 이인호 목사가 714 기도 비전을 소개하고, 유기성 목사(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가 말씀을 전한다. 박성수 목사(부산온누리교회),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가 기도를 인도한다. 찬양은 선한목자교회 찬양팀과 청년찬양팀(경기)이 한다.

세 번째 세션(오후 6시 50분)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 및 714연합기도대성회를 소개하고,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신사 목사(남군산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이인호 목사가 기도를 인도한다. 찬양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팀과 청년찬양팀(서울)이 한다.

714연합기도대성회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 1천 명과 안내 봉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들은 행사 당일 안내데스크로 오거나 사전에 문의(02-868-8425)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2025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홈페이지(ventures.kr)에서 접수하면 된다. 7~8월 심사 및 선발을 거쳐, 9~11월 비즈니스 리더와의 멘토링을 하고, 11월 29일(토) 최종결선대회를 치른다.

'2025 어!벤처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 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거나 하고,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승 기업에게는 공동주관 기관인 '씨엔터테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기회와 부상을 준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 친히 다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두 개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불신앙 보고를 한 이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다고 불평했습니다.

둘째,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단순한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제거하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1~12절을 보면, '얼마나 더'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2절에서는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불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 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불평하며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의 깊은 물을 건너는 다리가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에 있었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대면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본능에 충실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살 수 있다면, 자기 미래만 보장된다면, 자기에게 유익

이 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모든 이를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택한 하나님의 사람과 계획을 나누시는 게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셨듯이, 모세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더 크고 더 강한 민족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모세에게는 어쩌면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3~16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놀라운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평가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평가받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경배, 간구, 중보

기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배, 간구, 중보입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는 다른 이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초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경배의 기도가 가장 앞서야 합니다.

출애굽 시킨 목적도,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겔 20:9).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은 그들의 불행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합당한 용서를 간구했습니다(17~18절). 17절에서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내를 크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모세가 인내심 없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합당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출 34:6~7).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주신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린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장 이기기 어려울 때가 부모가 한 말을 가지고 대들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점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돌아키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자비가 많으시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19절).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배반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와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20~21절).

'내가 말한 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민족 전체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용서가 선포되었지만 모든 게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주어진다고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이들 가운데 20세 이상 사람들은 빠짐없이 40여 년 더 생존할 기회를 주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7월 14일(월)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사용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제자양육 담당 이기훈 목사님과 함께

“제자의 삶,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출간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 ‘일대일 제자양육’의 본질과 실재를 담은 신간이 나왔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과 이기훈 목사(일대일 제자양육 담당)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가 그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은 기존 교재의 내용을 개편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더욱 체계화했다.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는 훈련받지 않은 신앙이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기훈 목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제자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고, 불편하고,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지나며 회복을 경험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이 나왔습니다. 기존 교재와 어떻게 다릅니까?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은 기존 교재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우선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고 과정을 첫 만남을 포함해서 16주로 나눴습니다. 또한 교재에서 ‘예수’라고 했던 표현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등 더욱 인격적이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교재의 내용 중에서 성경적 이해를 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나 성경 구절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기존 교재의 문장들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바뀌어 초신자도 부담 없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과에 주어지는 과제들을 주제에 맞게 재배정했고, 구원 간증문 작성, 큐티 실습 및 나눔, 기도문 작성 등 실습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과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문’을 첨가해서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이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편집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개편되면서 당분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 더욱 깊이 있고, 실제적인 제자훈련을 경험하게 하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변화에는 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새롭게 개정된 교재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제자들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을 교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양

육을 시작한 성도들은 이전 교재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신간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도 출간하셨습니까.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지금이야말로 제자훈련이 필요한 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우 허약해졌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속주의와 반기독교적 사상에 밀려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온누리교회는故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교회의 DNA로 삼고 지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책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담았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성경적 원리와 실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성도를 넘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에서 ‘훈련 없이는 성장도 없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 탄생한다’는 표현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임

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교회를 섬기기보다 소비하는 형태에 머무릅니다. 반면, 훈련을 받은 제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적 훈련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탄생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삶의 최고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이 훈련받고, 성장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과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두 책 모두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에서는 큐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큐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해 주는 영성의 도구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

한 관계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묵상을 올바르게 하도록 훈련합니다. 또 일대일 제자양육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합니다. 큐티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에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두었고,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은 큐티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과 실습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성인만의 훈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제자로 훈련받아 세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가정과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굉장합니다. 부모가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진화론, 동성애 등 아이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에 뿌리내린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고, 불편하고,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지나며 회복을 경험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양육자는 동반자를 훈련하면서 성숙해지고, 동반자는 제자의 첫걸음을 떼며 치유를 경험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온누리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에 제자훈련의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개정 4판
두란노 편집 | 두란노 | 14,000원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기훈 저 | 두란노 | 12,000원

맛있는 말씀 해설

“...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막 11:14)

〈마가복음〉 11장에는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모습이 나온다. 혹자는 이를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진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직후,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장사치와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저주하시고 폭력을 행하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 읽어야 한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계셨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멀리서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다가가셨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파개’라고 불리

는 작은 열매가 먼저 맺힌다. 하지만 파개는 맛도 없고, 덜 익어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면 탐스럽고 큰 열매인 ‘테에나’가 열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서 먹는다. 성경은 그때가 ‘테에나’를 얻을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파개라도 열려 있겠지’ 하고 다가가셨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파개조차 맺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앞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기도는 고사하고 모두 장사치고, 돈 바꾸는 일만 하는 게 아닌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 흠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물을 다시 사제 만들고,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하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화가 나서서 모든 상인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책망하셨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사장들은 열매 없이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았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주여, 아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째 말았나이다”라면서 보고한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며 “너희가 전심으로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치신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의 신앙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말씀이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열매 맺게 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 우리 삶의 기도는 파개와 같다. 파개가 없다면 앞만 무성한 나무와 같게 된다. 성령의 역사, 테에나의 때가 오기 전에 기도, 즉 파개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성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가 가득한가?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각종 편의시설과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잡상인들의 마음이 가득한가? 어느 교회도 처음부터 상인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러나 실용과 이익의 측면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성전에 잡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 마음도 똑같다. 순수한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 득실과 이익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가 가득할 때 세속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속의 때가 묻지 않도록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바른 복음 위에 서는 교회

7월 7일~13일

〈시편〉 89:38~52,

〈디모데전서〉 1:1~4:16



망의 간구와 믿음의 찬양을 묵상하자.

89편: 다윗 왕조의 멸망이라는 국가적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이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으나, 언약이 파기된 듯 유다는 멸망했다. 〈시편〉 기자는 언약과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나님께 질문한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말하며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다.

묵상포인트 2: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목회 지침을 전하는 바울의 편지다. 성도는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교훈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거짓 복음의 유혹에서 바른 복음을 지켜

묵상포인트 1:

89편은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로, 마지막 구절이 송영으로 끝난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후에는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함을 말해 준다. 하나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상황에서 드린 소

나기 위해 전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거짓)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신화와 족보 등 헛된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만 일킬 뿐이다. 바울이 전하는 교훈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후메나오와 알렉산더는 선한 양심을 저버려 신앙생활에서 파산한 이들이다. 또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성도는 다름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선행으로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직분보다 직분자의 인격과 덕행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선을 행하고 경건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바라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교회 안팎에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섬김을 일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술과 폭력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신앙 연륜이 적은 새신자는 감독에 적합하지 않

다. 집사들도 정중하며 일구어안하지 않고 술과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책잡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시편〉 기자가 직면한 현실은 하나님 약속과 너무나 달랐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바울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했다.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바르게 분별하기를 힘쓰자. ▶중보기도의 대상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대리자로 세우신 세상 권력자들도 포함된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따라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기도하자.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 성숙한 믿음과 덕행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힘쓰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훈련하라고 권면했다.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분당A공동체를 위해!

분당A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분당A공동체에서 8월 말을 목표로 준비하는 순개편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순원들의 새로운 만남이 각자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다가오는 10월, 일본 러브소나타가 집회에 공동체 성도님들이 많이 참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분당A공동체를 섬기는 정희성 목사의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권현정 사모님의 두경부암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U국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김현수, 홍성애 선교사님께 필요한 비자가 순조롭게 발급되고, 안정된 거주지와 언어 습득 등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원, 소영주 선교사님이 진행 중인 현지 지도자반양육 과정에 신실한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언어의 발전과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분당A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분당A공동체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 십계명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좋은 세상 더 좋게 가꾸라”는 소명과 순종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골손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경제 불평등, 실업,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사도행전> 4장 32절~5장 11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를 사회주의적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발전문가 스테판 그레빌은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타인의 선을 추구하는 기독교적 사랑(caritas)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팔았고, 바나바도 일부 밭(a field)만 팔았지, 전 재산을 팔지 않았다. 우리는 남의 물건으로 관대할 수 없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먼저 우리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 자발적 사랑의 실천이었다. 왜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소유를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창 1:26~28).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듯, 인간도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십계명과 성경 전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출 20:15),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마라”(출 20:17), “너희 이웃의 경계들을 움직이지 말라”(신 19:14).

이 명령들은 하나님이 개인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구분하는 경계를 정해주셨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지로 쓸 막벨라 굴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했다. 약속의 땅을 가져 받은 게 아니라 책임감과 대가를 통해 소유하는 신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레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것과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업(창 2:19)과의 연관성도 설명한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명의 대상을 사회적 질서와 관계 속에 편입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게 하는 관리의 현실이자, 하나님이 개인에게 맡긴 사적 재산의 현실을 반영한다.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

개발경제학자 데 소토는 서구에서만 자본

주의가 성공한 원인이 명확한 사적 소유권과 법적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법치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자원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전쟁과 범죄, 갈등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

로버트 시리코 신부는 재산은 궁극적으로 관리의 책임이며, 가족이 자유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적 재산권은 가족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창세기>의 인간관(칭지기적 소명, 가족의 창조와 공동체의 기초, 자유와 책임의 조화)을 깊이 반영한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피조물은 좋았다. 우리도 창조를 완성하는 일의 소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생산적인 노동은 선하다. 따라서 노동의 열매인 이익을 누리는 것은 선하다. 그것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도 선하다. 잉여 이익을 투자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도

패락주의와 혼합되어 개인주의, 소비주의, 기술지상주의로 나타났다. 개인주의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게 해서 결국 국 정치적 중앙집권화로 이어진다. 토크빌이 “권력자는 백성들이 권력자를 사랑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소비주의는 ‘내일 죽을 테니 지금 즐기자’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며 영원한 언약 공동체로서 다음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

기술지상주의는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죽음과 같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트랜스휴머니즘 같이 이 땅에 기술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문제는 초월적 질서와 도덕적 절대성인 기독교적 가치를 부정한 세속화의 영향을 받았다. 단순히 탐욕스러운 자본가 때문으로 돌리긴 어렵다. 아담 스미스도 사업가들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탐욕 혹은 이기

즘). 이 이론의 전제는 반성경적인 유물론, 계급 갈등에 기반해 있다. 하이에크는 이를 현실을 이념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의지의 집착이자 획일적 기준과 강제로 개인의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며 이견과 질문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의 정권이 저지른 대량 학살, 고통, 범죄, 경제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를 ‘상대주의의 독재’라 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는 신념이 진리와 현실의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을 막는다.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결국 이데올로기만 남고, 교육은 이데올로기의 주입, 즉 세뇌로 강동된다.

이토록 반기독교적 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이유로 마이클 매티슨 밀러 교수는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데올로기의 힘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상은 많은 타협이 필요하고, 희소성, 인간의 욕망, 빈곤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기술적 해결책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원하면서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시장 자체는 목적이 아니며, 시장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절대 권력이 주어질 때 부패하기 마련인 국가나 소수의 권력자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 가족, 교회, 지역 시민단체와 같은 중재기관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게 더 나은 출발점이다. 성경은 교회인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은 일을 하라(눅 10:37)고 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평범한 인간이란 없고, 국가나 문명은 반드시 사라지지만 우리가 함께 농담하고 일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함께 하지 못하게 될 불멸의 영혼의 존재들이다. 반면 세속주의적 인간관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거나(트랜스휴머니즘) 동물처럼 살라고 한다(소비주의). 이에 대해 마이클 밀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조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반영할 때 사람들은 변형한다.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는 허황된 이데올로기에 현혹되는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을 더 좋게 가꾸라는 소명을 기억하고 순종하자.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는
허황된 이데올로기에 현혹되는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을
더 좋게 가꾸라는
소명을 기억하고 순종하자.”

선하다(골레만 선사인).

인간은 단순한 소비자나 국가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다. 창조적 생산자이자 주체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이토록 깊이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 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가 실제 사회, 경제 구조에 적용되는 체제인 자본주의는 오늘날 탐욕과 불평등의 심화, 소비주의의 온상 등 온갖 나쁜 것의 대명사처럼 여겨진다.

기독교적 가치 부정한 세속화 영향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다. 대신 중앙집권적 관료제, 정실자본주의, 기술관료주의, 포퓰리즘과 같은 요소들이 섞인 하이브리드 체제다. 정치철학자 아구스토 델 노체는 1960년대 자본주의가 기독교적 전통 윤리에서 벗어나 극단화된 세속적 인본주의로 오염되었다고 했다. 그 결과 절대적 가치의 상실, 목적 없는 진보, 도덕적 상대주의로 특징되는 ‘허무주의’가

심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아담 스미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은 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인류 전체의 행복과 번영이라는 더 큰 목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복잡한 전체 경제를 소수의 권력자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는 아담 스미스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 어떤 정부도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계획할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정확한 의미조차 모른다(고전 13:12).

정치철학자 에리히 괴켈린이 지적한 ‘종말의 현세화’란 모든 눈물의 의미가 이해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수단으로 현세에 완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런 시도는 구원이 정치적 해결책으로 대체된다. 죄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개인이 아닌 ‘탐욕적 자본가’ 같은 특정 집단 탓으로 돌리며 회개와 속죄 대신 구조적 악인 특정 집단을 제거하는 게 해결책이 되어 결국 폭력과 억압으로 이어진다(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매커니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호평

벌써 누적 관객 수 4만 명 돌파!

지난달 25일 개봉한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벌써 누적 관객 수 4만 명을 돌파했다(7월 4일 기준).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화인 것 같다"(김상복 목사), "이 영화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배우 권오중) 등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은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하루 2회 상영한다. 교회에서 영화관

을 단체 대관하면 러닝타임 90분 외에 30분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화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은 일제강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온 두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7년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후 CGN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문의: 02-3275-9303, 930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GN 신규 콘텐츠 '걸어서 이스라엘'

매주 화요일 CGN TV, 기독 OTT '풍당', 유튜브

CGN이 여름맞이 성지순례 콘텐츠로 기획한 '걸어서 이스라엘' 1편을 지난 7월 1일(화) 공개했다. '걸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 속 이스라엘을 탐험하는 성지 체험 브이로그(Vlog)다. 총 10편으로, 회당 러닝타임 약 15분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CGN TV, 오후 5시 기독 OTT '풍당', CGN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걸어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장소, 솔로몬 시대와 예수님 당시 유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예수님 무덤으로 추측되는 정원 무덤 등에 대한 진실 등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20년째 이스라엘 거주 중인 유진상 교수(히브리대 한동 글로벌센터 책임) 부자(父子)가 출연한다. 문의: 02-796-9800

영어예배, 주일 오전 예배 신설 및 차세대 예배 시간 변경

온누리교회 영어예배(OEM)가 주일 오전 예배를 신설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드린다. 기존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천홀에서 드리던 영어예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언어 가정을 섬기기 위해 영어 설교의 한국어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영어예배 차세대 예배는 시간이 변경됐다. 오후 4시에 드리던 차세대 예배를 모두 오전 11시 30분에 드린다. 중고등부(AMPD)는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아동부(Pre K~1st, 2nd~5th)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신관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 문의: 02-3215-3684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 아프리카 어린이날 특별행사 개최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가 지난달 17일(화) 르완다 동부 르와마가나 디스트릭트와 협력해 '국제 아프리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응호망과 ECD센터에서 개최했다. 응호망과 ECD센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리더,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어린이날 특별행사는 'Umwana wanjye, ishema ryanjye(내 아이, 나의 자랑)'를 주제로 진행됐다.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되새기고, 아동 발달의 중요성 등을 지역사회에 알렸다. 응호망과 ECD센터 아동 교육 시연 및 공연, ECD 활동 시상, 지역 파트너 스피치 등도 했다.

이번 아프리카 어린이날 특별행사는 아프리카 지방정부와 NGO가 협력해서 아동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홍하영 기자

그리는 기도 보이는 묵상

7월 9~14일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정기전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OREAN CHRISTIAN ART FEAST, KCAF)가 제13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7월 9일(수)부터 14일(월)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특별관, 신관1관)와 가온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그리는 기도, 보이는 묵상' (신 30:20)이다. 작가 174명이 참여하고, 작품 340점을 선보인다. 전시회 수익금은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한다.

문의: 010-2321-6494

차세대 여름사역 본격 시작!

7월 5일~8월 10일 캠퍼스 본당 및 외부

온누리교회 차세대 여름사역이 시작됐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파워웨이브(중고등부) 부서별로 8월 10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 및 외부에서 진행된다.

올해 차세대 여름사역에서는 성경 속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꿈, 인도하심을 배운다. 예수님의꿈아이와 꿈이자라는

땅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꿈을 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등 과별 주제로 성경 퀴즈, 적용 놀이, 체험활동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His Plan'을 주제로 외부에서 찬양과 기도, 강의 중심의 여름캠프를 한다.

문의: 02-3215-3521

7월 화요성령집회 '사생결단'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본당

7월 화요성령집회가 '사생결단'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본당에서 열린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7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8월 이

서진 목사 '회심을 향한 결단' (왕하 23:1~25), 15일 특별예배 '통일의 길, 하나님의 꿈' (렘 1:10), 22일 최성민 목사 '순종을 향한 결단' (룻 3:1~18), 29일 최대홍 목사 '중보를 향한 결단' (창 18:22~33)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청년 통일공감행사 '통일의 길, 하나님의 꿈'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청년 통일공감행사 '통일의 길, 하나님의 꿈'이 7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화요성령집회와 통일선교팀 연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청년 통일공감 행사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7가지 소묘'라는 제목의 통일주제 연극공연과 북한 및 통일 관련 전시회

를 한다.

전시회에서는 북한 물품과 중보 기도 스티커, 통일선교 MBTI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OBC '성경연구방법론' 서빙고 강부순 장로반

7월 15일~9월 2일 매주 화 오후 7시 화평홀

OBC 성경연구방법론 서빙고 강부순 장로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24일(목)까지 아이스쿨(school@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OBC 성경연구방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8480-9970

/ 박지혜 기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2025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 110명 참석

2025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지난 7월 1~2일 열렸다.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간사 및 목회자 110명이 참석했다. 올해 간사수련회에서는 도착예배, 최용일 장로 특강, 노치형 목사 설교, 저녁예배, 외부활동, 폐회예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도착예배는 '예수님을 달아가는 온누리 간사 공동체'를 주제로 노치형 목사, 특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치료하자'를 주제로 최용일 장로, 저녁예배는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를 주제로 노치형 목사, 폐회예배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오민 목사가 전했다.

노치형 목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지성을 넘어선 '지혜'를 갖춰야 한다"면서 "온누리교회 간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최용일 장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가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민 목사는 "간사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축복했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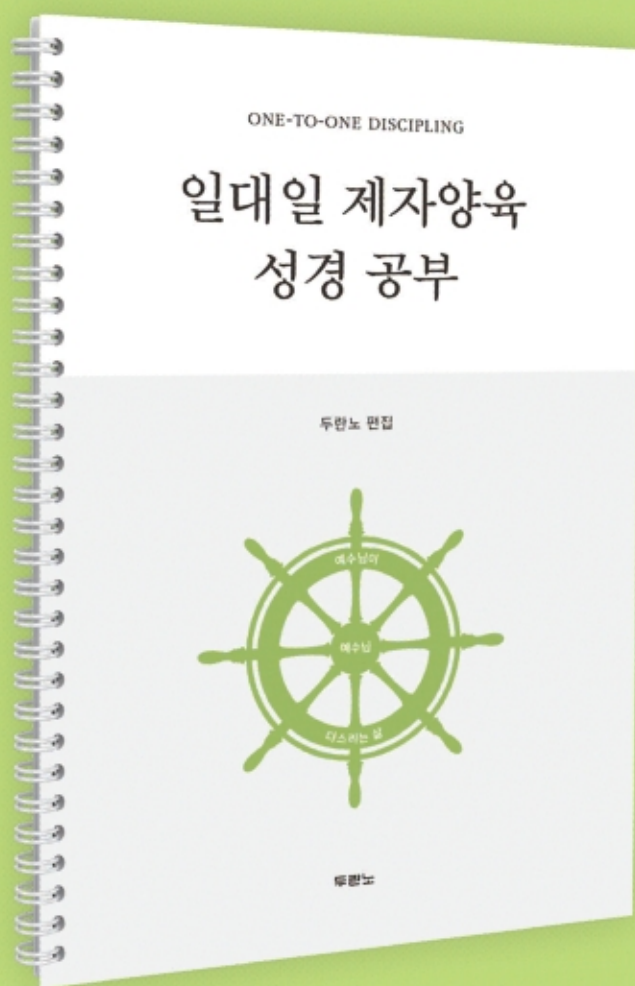


ONE-TO-ONE DISCIPLING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NEW

40년의 검증,
새로운 옷을 입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개정 4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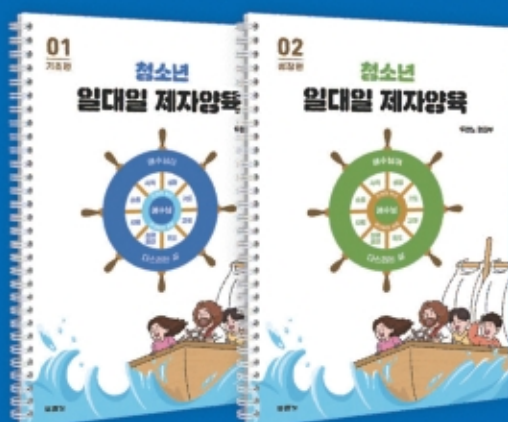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사역의 핵심 DNA,
일대일 제자양육!

자기 중심적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탁월하고 검증된 제자훈련 교재!

개정 4판의 특징

- ✓ 기존 교재의 틀을 유지하되 각 과를 총 16개로 단순화했다.
- ✓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다.
- ✓ 주제마다 나눔 질문을 추가했다.
- ✓ 암송 구절을 매 과마다 1개씩, 총 15개로 조정했다.
- ✓ 큐티 실습, 기도문 작성 등 실천적인 적용을 추가했다.

주목!! 세대별 맞춤 교재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청소년
일대일 제자양육
1권. 기초편 / 2권. 성장편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두란노